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영아기 영양에 대한 상담 실태 조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도은정 · 이은실 · 신순문*

Survey on Counseling about Infant Nutrition Among Doctors on Practicing Pediatric Patients in Primary Medical Facilities

Eun Jung Doe, M.D., Eun Sil Lee, M.D. and Son Moon Shin,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 Through a survey undertaken among doctors practicing pediatric patients in primary medical facilities on nutrition during infancy, the present study was done to determine whether these doctors were giving appropriate advice on infant nutrition.

Methods : We visited pediatric specialists(group one) and non-pediatric specialists or general practitioners(group two) who were practicing in Daegu to ask them to fill out a questionnaire on infant nutrition.

Results : When 10 points were given to each question for a total of 100 points,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owed that the score in group one was 73.0 ± 15.8 points and 45.1 ± 18.4 points in group two,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seen in the scores between non-pediatric specialists and general practitioners. Each answer to each question on the feeding period of breast milk, on loose stools during breast milk feeding, methods to deal with jaundice during breast milk feeding, choice of commercial baby food, criteria on directing soy milk, and criteria of guiding infant cereal was different between group one and two.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showed that specialists in other fields or general practitioners were giving inappropriate advice on nutrition during the infant stage compared with pediatric specialists; thus, we need to confirm methods to prevent inappropriate consultations by specialists of other fields, together with continued education of pediatric specialists. (J

Korean Pediatr Soc 2002;45:1332-1339)

Key Words : Infant nutrition, Pediatric specialist, Non-pediatric specialist

서 론

현대의 의료는 질병에 대한 개념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은 외국과는 달리 질병의 치료에

접수 : 2002년 7월 11일, 승인 : 2002년 8월 23일
책임저자 : 신순문, 성균관의대 삼성제일병원 소아과
Tel : 02)2000-7078 Fax : 02)2000-7778
E-mail : smshin@hotmail.com

만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료나 육아 상담료와 같은 예방 차원의 의료행위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 질병 예방을 위한 의사들의 역할은 무시되어 왔고 의사들도 이에 대한 사항은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 의료법은 3-4년 동안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과 술기를 습득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해당과의 전문의 자격을 얻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들이 개원을 한 경우 전문 과목 이외에 진료 과목을 표기하여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자와 질병을 상대로 진료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로 소아에 대한 진료나 육아 상담에 소아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들이 많은 부분 관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아과 의사는 4년의 전문의 수련과정 동안 어린이를 정기적으로 진찰하여 성장과 발육과정을 평가하고, 육아와 영양을 지도하고 부모와 상담을 함으로써 어린이가 가진 신체, 지능,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소아과 전문의 중 개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외래에서 주로 감염성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 질병의 치료에만 치중하다 보니 육아 상담과 같은 소아의 예방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까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유식에 관한 인식도 조사는 있었지만 실제로 육아 상담을 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소아과 전문의와 소아과를 진료 과목으로 표방하고 소아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영아기의 영양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상담을 해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구광역시에서 개원을 하고 있거나 봉직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1군)와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하고 있는 비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2군)를 대상으로 영아기 영양에 관한 육아 상담 내용을 미리 작성한 객관식 10문제(별지 1)를 이용하여 방문조사 하였다. 두 군의 구성원의 남녀비 차이는 없었고(Table 1),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1군이 45.6±11.0세이고, 2군은 45.0±10.4세였으며, 구성원의 연령 분포에도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Table 2).

조사에 참여한 의사는 267명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101명, 비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가 166명이었다. 비 소아과 전문의는 내과 63명, 일반외과 21명, 산부인과 20명, 가정의학과 16명, 이비인후과 7명, 정신과, 흉부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각각 1명이었고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는 36명이었다(Table 3).

두 군간 조사된 변수들의 차이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ver 10.0)를 이용하여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고 P<0.05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Table 1. Sex Distribution of Study Population

| Sex | Group 1 No. | Group 2 No. |
|--------|-------------|-------------|
| Male | 55 | 134 |
| Female | 46 | 32 |

Table 2. Age Distribution of Study Population

| Age(Y) | Group 1 No. | Group 2 No.(%) |
|--------|-------------|----------------|
| 30-39 | 32 | 65 |
| 40-49 | 43 | 51 |
| 50-59 | 15 | 32 |
| 60-69 | 7 | 11 |
| ≥70 | 4 | 7 |

Table 3. Distribution by Special Fields of Study Population

| Special Fields | No. |
|-------------------------|-----|
| Pediatrics | 101 |
| Internal medicine | 63 |
| General practitioners | 36 |
| General surgery | 21 |
| Obstetrics & Gynecology | 20 |
| Family medicine | 16 |
| ENT | 7 |
| Psychiatrics | 1 |
| Chest surgery | 1 |
| Neurology | 1 |
| Total | 267 |

[별지 1]

영아기 영양에 관한 설문지

1. 모유를 언제까지 먹이도록 권하십니까?
① 1-2개월 ② 3-4개월 ③ 5-6개월 ④ 7-8개월 ⑤ 9-10개월
⑥ 11-12개월 ⑦ 잘 모르겠다.
2. 모유를 먹는 아기가 건강해 보이지만 물 같이 묽은 번을 볼 때 어떻게 하도록 권하십니까?
① 그냥 모유를 계속 먹이라고 한다.
② 모유를 일시 중단하고 일반 분유를 먹이라고 한다.
③ 모유를 일시 중단하고 설사용 분유(예, 호프 닥터, MF-1 등)를 먹이라고 한다.
④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특별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3. 모유를 먹는 생후 열흘 정도 된 아기가 황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도록 권하십니까?
① 모유를 계속 먹이도록 한다.
② 모유 대신 일반 분유로 바꾸어 먹이도록 한다.
③ 모유를 일시 중단하고 황달이 덜 해지면 다시 먹이도록 한다.
④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특별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4. 생후 2주 이내의 신생아에게 모유가 부족해서 분유를 보충하는게 좋은지 물어 보는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권하십니까?
① 모유 분비가 촉진되도록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젖을 자주 물리도록 권한다.
② 모유를 먼저 먹인 후 부족해 하면 분유를 보충해 주도록 한다.
③ 모유와 분유를 교대로 번갈아 가며 먹인다.
④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특별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5. 이유식은 보통 생후 몇 개월경에 시작하도록 권장하십니까?
① 2-3개월 ② 4-6개월 ③ 7-9개월 ④ 10-12개월 ⑤ 돌이 지나서
⑥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특별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6. 분유회사에서 생산되는 분말 형태의 시판 이유식은 어떻게 먹이도록 권하십니까?
① 이유식 분말을 물에 타서 우유 병에 넣어 먹이도록 한다.
② 분유와 이유식 분말을 적당히 혼합해서 우유병에 넣어 먹이도록 한다.
③ 묽은 스프치럼 타서 숟가락으로 떠 먹인다.
④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특별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7. 생우유는 생후 언제부터 먹여도 괜찮다고 권하십니까?
① 5-6개월 ② 7-8개월 ③ 9-10개월 ④ 11-12개월 ⑤ 돌이 지나서
8. 콩으로 만든 식물성 분유인 두유 제품(예, 베지밀 인퀀트 등)이 얼마 전부터 시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아기들에게 일반 분유 대신 먹이도록 권장할 만 합니까?
① 권장할 만 하다.
② 권장할 만 하지 못하다.
③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특별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9. 요즘은 어머니들이 아기들의 이유식으로 선식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식으로 선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① 건강식으로 좋다.
②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특별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10. 분유를 먹는 아기들에게 하루에 먹는 분유 양을 최대한 얼마까지 허용하십니까?
① 500 cc ② 750 cc ③ 1,000 cc ④ 1,250 cc ⑤ 1,500 cc ⑥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⑦ 모르겠다.

결 과

1. 점 수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인 경우 10점, 오답인 경우를 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1군의 점수는 73.0±15.8점, 2군은 45.1±18.4점으로 두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4). 연령별 점수는 30대가 59.7±20.8, 40대 56.8±21.6, 50대 53.0±23.4, 60대 49.4±21.3, 70대 이상이 47.3±20.5로 연령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비소아과 전문의 중 전문 과목에 따른 점수는 내과 전문의가 46.5±20.2, 산부인과 전문의 44.5±20.6, 일반외과 전문의 40.5±15.6, 가정의학과 전문의 56.3±16.9, 이비인후과 전문의 47.1±15.0, 일반의 45.3±16.3점이었으며 타과 전문의와 일반의사 간의 점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2. 모유 수유 권장 기간

모유를 언제까지 먹이도록 권하느냐는 질문에 12개월까지 먹이도록 권장한다는 대답이 1군에서는 49.5%, 2군에서는 23.5%로 1군과 2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2군에서는 5-6개월까지 먹이도록 권장한다는 대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Table 5).

Table 4. Scores in each Groups

| | Group 1(points) | Group 2(points) |
|-------|-----------------|-----------------|
| Score | 73.0±15.8 | 45.1±18.4* |

* $P<0.05$ vs group 1

Table 5. Recommended Duration for Breast Feeding

| Duration(Mo) | Group 1 No.(%) | Group 2 No.(%) |
|--------------|----------------|----------------|
| 1-2 | 1(1.0) | 5(3.0) |
| 3-4 | 2(2.0) | 14(8.4) |
| 5-6 | 24(23.8) | 72(43.4) |
| 7-8 | 9(8.9) | 18(10.9) |
| 9-10 | 14(13.8) | 10(6.0) |
| 11-12 | 50(49.5) | 39(23.5)* |
| No idea | 1(1.0) | 8(4.8) |

* $P<0.05$ vs group 1

3. 모유 수유 증의 변

‘모유를 먹는 아기가 건강해 보이지만 물 같이 묽은 변을 볼 때 어떻게 하도록 권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냥 모유를 계속 먹이라고 권한다는 대답이 1군에서는 94.0%, 2군에서는 57.2%를 차지하여 두 군에서 모두 가장 많았으나 1군과 2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설사용 분유로 바꾸어 먹이도록 하는 경우는 1군에서는 5.0%를 차지하였으나 2군에서는 30.1%나 되었다(Table 6).

4. 황달시의 대처 요령

‘모유를 먹는 생후 열흘 정도 된 아기가 황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도록 권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모유를 일시 중단하고 황달이 덜 해지면 다시 먹이도록 하는 경우가 1군에서는 76.2%, 2군에서는 56.0%로 가장 많았으나 1군과 2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그리고 모유를 계속 먹이도록 권하는 경우가 1군에서는 22.8%, 2군에서는 29.5%를 차지하였고 2군에서는 10.9%가 모유 대신 일반 분유로 바꾸어 먹일 것을 권하였다(Table 7).

5. 모유 부족시 대처 요령

‘생후 2주 이내의 신생아에게 모유가 부족해서 분

Table 6. Recommendation for Loose Stool with Breast Feeding

| Action | Group 1 No.(%) | Group 2 No.(%) |
|---------------------------|----------------|----------------|
| Continue breast milk | 95(94.0) | 95(57.2)* |
| Change to formula | 1(1.0) | 17(10.3) |
| Change to special formula | 5(5.0) | 50(30.1) |
| No idea | 0(0.0) | 4(2.4) |

* $P<0.05$ vs group 1

Table 7. Recommendation for Ten Old Newborns with Breast Milk Jaundice

| Action | Group 1 No.(%) | Group 2 No.(%) |
|----------------------------|----------------|----------------|
| Continue breast milk | 23(22.8) | 49(29.5) |
| Change to formula | 1(1.0) | 18(10.9) |
| Temporary stop breast milk | 77(76.2) | 93(56.0)* |
| No idea | 0(0.0) | 6(3.6) |

* $P<0.05$ vs group 1

유를 보충하는게 좋은지 물어 보는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권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모유를 먼저 먹인 후 부족해 하면 분유를 보충해 주도록 하는 경우가 1군에서는 57.4%, 2군에서는 57.2%로 가장 많았으나, 모유 분비가 촉진되도록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젖을 자주 물리도록 권하는 경우는 1군에서는 35.7%, 2군에서는 31.4%로 두 군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Table 8).

6. 이유식의 시작 시기

‘이유식은 보통 생후 몇 개월경에 시작하도록 권장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4-6개월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1군에서는 90.1%, 2군에서는 56.6%로 가장 많았으나 1군과 2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2군에서는 25.4%가 7-9개월이라고 대답하였다(Table 9).

7. 시판 이유식을 먹이는 형태

‘분유회사에서 생산되는 분말 형태의 시판 이유식은 어떻게 먹이도록 권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묽은 스프처럼 타서 숟가락으로 떠서 먹이도록 하는 경우가 1군 79.2%, 2군 47.0%로 가장 많았으나 1군과 2

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2군에서는 ‘이유식 분말을 물에 타서 우유병에 넣어 먹이도록 한다’, ‘분유와 이유식 분말을 적당히 혼합해서 우유병에 넣어 먹이도록 한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특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19.9%, 18.6%, 14.5%를 차지하였다(Table 10).

8. 생우유 수유 시기

‘생우유는 생후 언제부터 먹어도 괜찮다고 권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돌이 지나서 먹이도록 하는 경우가 1군에서는 77.2%, 2군에서는 57.9%로 가장 많았으며 1군과 2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2군의 40.9%가 12개월 이전에 생우유를 먹이도록 권장하였다(Table 11).

9. 식물성 분유에 대한 지도 방침

‘콩으로 만든 식물성 분유인 두유 제품(예, 베지밀 인펀트 등)이 얼마 전부터 시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아기들에게 일반 분유 대신 먹이도록 권장할 만 합니까?’라는 질문에는 ‘권장할 만 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1군에서는 88.1%, 2군에서는 53.6%로 가장 많았으나 1군과 2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그러나 2군의

Table 8. Recommendation for Inadequate Breast Milk Excretion

| Action | Group 1 No.(%) | Group 2 No.(%) |
|--|----------------|----------------|
| Increase water intake and frequent breast milk feeding | 36(35.7) | 52(31.4) |
| Add cow's milk formula to breast milk | 58(57.4) | 95(57.2) |
| Alternate feeding with Breast and cow's milk formula | 7(6.9) | 12(7.2) |
| No idea | 0(0.0) | 7(4.2) |

Table 9. Recommended Age for Weaning

| Age(Mo) | Group 1 No.(%) | Group 2 No.(%) |
|---------|----------------|----------------|
| 2-3 | 9(8.9) | 11(6.6) |
| 4-6 | 91(90.1) | 94(56.6)* |
| 7-9 | 1(1.0) | 42(25.4) |
| 10-12 | 0(0.0) | 14(8.4) |
| >12 | 0(0.0) | 4(2.4) |
| No idea | 0(0.0) | 1(0.6) |

* $P<0.05$ vs group 1

Table 10. Recommended Feeding Method for Commercial Weaning Food

| Method | Group 1 No.(%) | Group 2 No.(%) |
|------------------------------|----------------|----------------|
| By bottle | 7(6.9) | 33(19.9) |
| By bottle mixed with formula | 4(4.0) | 31(18.6) |
| Spoon | 80(79.2) | 78(47.0)* |
| No idea | 10(9.9) | 24(14.5) |

* $P<0.05$ vs group 1

Table 11. Recommended Time for Introduction of Cow's Milk

| Age(Mo) | Group 1 No.(%) | Group 2 No.(%) |
|---------|----------------|----------------|
| 5-6 | 2(2.0) | 14(8.4) |
| 7-8 | 5(5.0) | 15(9.0) |
| 9-10 | 6(5.9) | 16(9.6) |
| 11-12 | 10(9.9) | 23(13.9) |
| >12 | 78(77.2) | 96(57.9) |
| No idea | 0(0.0) | 2(1.2) |

Table 12. Recommendation of Soy Milk instead of Cow's Milk Formula

| | Group 1 No.(%) | Group 2 No.(%) |
|---------|----------------|----------------|
| Yes | 6(6.0) | 47(28.3) |
| No | 89(88.1) | 89(53.6)* |
| No idea | 6(5.9) | 30(18.1) |

*P<0.05 vs group 1

Table 13. Recommendation for Sunsik* as a Weaning Food

| | Group 1 No.(%) | Group 2 No.(%) |
|---------|----------------|-----------------------|
| Yes | 13(12.9) | 40(24.1) |
| No | 81(80.2) | 85(51.2) [†] |
| No idea | 7(6.9) | 41(24.7) |

*Sunsik : Commercial Infant Cereal in Korea

[†]P<0.05 vs group 1

Table 14. Recommended Maximal Volume per Day for Foemula Feeding

| Quantity(mL) | Group 1 No.(%) | Group 2 No.(%) |
|--------------|----------------|----------------|
| 500 | 3(3.0) | 4(2.4) |
| 750 | 4(4.0) | 12(7.2) |
| 1,000 | 48(47.5) | 46(27.7) |
| 1,250 | 15(14.8) | 22(13.3) |
| 1,500 | 7(6.9) | 20(12.1) |
| Unlimited | 24(23.8) | 50(30.1) |
| No idea | 0(0.0) | 12(7.2) |

28.3%가 권장한다고 대답하였다(Table 12).

10. 선식에 대한 지도 방침

‘요즈음 어머니들이 아기들의 이유식으로 선식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식으로 선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1군에서는 80.2%, 2군에서는 51.2%로 가장 많았으나 1군과 2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그러나 2군의 24.1%가 건강식으로 좋다고 대답하였고 24.7%가 특별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Table 13).

11. 분유 수유 최대 허용량

‘분유를 먹는 아기들에게 하루에 먹는 분유 양을 최대한 얼마까지 허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000

mL까지라고 대답한 경우가 1군에서 47.5%로 가장 많았으며 제한을 두지 않고 먹이도록 하는 경우도 23.8%였다. 2군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경우가 30.1%로 가장 많았다. 이 질문의 대답에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4).

고 찰

이유기란 모유만으로 단백질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시기¹⁾, 우유보다 다양한 보충식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²⁾, 모유나 분유 대신에 보충식을 첨가하는 시기³⁾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유식의 근본 목적은 영아의 발달 과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이룩하게 하고 다양한 영양식을 경험시키면서 의존적인 식사에서 독립적인 식습관으로의 자연적인 이행을 유도하는데 있다^{4, 5)}. 그러나 과거로부터 적절한 이유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란은 있어 왔고 이상적인 이유식에 대한 확실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험적인 근거에 의존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 현재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이유식에 관한 바른 정보와 권장 사항은 엄연히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의 전달은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아과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영·유아의 일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 중 소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많으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는 수가 많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자기 자식들의 영양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육아에 관한 상담까지도 이러한 영·유아를 진료하는 일차 의료 기관의 의사들을 믿고 의뢰하게 된다. 이들에 의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된다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전에 시행된 이유식에 관한 설문 조사와는 달리 이유식을 할 시기의 영·유아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질문과 해답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모유 수유하도록 권장하는 기간에 대해 최근에는 4-6개월부터는 보충식을 먹이면서 2년 혹은 모유가 나올 때까지는 모유를 빨리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1년까지 밖에 보기가 없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 의사들 중

보기 문항 중 답이 없다고 한 경우는 없었으며 소아과 전문의 중 1명, 비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 중 8명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이유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호자를 대상으로 몇 차례 시행한 적이 있다. 1977년 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의 조사보고⁶⁾에 의하면 모유 수유가 42.8%, 분유가 26.1%, 혼합 수유 31.1%를 차지했는데 17년 뒤인 1994년 조사⁷⁾에서는 모유 수유가 16.9%, 분유가 35.2%, 혼합 수유 47.9%로 모유 수유의 비율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 영양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출산 병원에서의 수유 권장 상태에 의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즉 출산 병원에서 모유를 먹이며 권장한 경우에는 모유 영양의 빈도가 높았으며 분유를 먹인 경우에 인공 영양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수유 방법을 결정할 때 의료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유식에 관한 정보의 습득에도 마찬가지로 의료인의 역할은 클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1994년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에서 설문지를 통한 이유실태 조사⁸⁾에 따르면 이유에 관한 지식을 얻는 매개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육아서적으로 61.7%였고 친구, 친지, 가족 어른을 통한 것이 36.8%, 신문 방송을 통한 경우가 8.2%였고, 병원이나 육아 상담실을 통한 것은 9.6%로 1977년 조사⁶⁾의 20.7%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어 의료인들이 좀 더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 결과 소아과 전문의들에 비해 타과 전문의들이나 일반의들은 영아기의 영양에 대해 부적절하게 상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아나 소아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비소아과 전문의나 일반의들이 상당 비율의 소아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여지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들조차도 이유식에 관한 질문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아과 전문의들도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아과 의사들은 모유의 생리, 가치, 수유 방법과 영아기 영양에 대한 교육이 전공의 수련 과정 중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소아과 전문의 개개인이 이유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육아 상담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

여야 하겠고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적 : 이 연구는 소아과 진료를 표방하는 1차 의료 기관의 의사를 대상으로 영아기의 영양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이 영아기 영양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상담을 해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방법 :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구광역시에서 개원을 하고 있거나 봉직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1군)와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하고 있는 비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2군)를 대상으로 영아기 영양에 관한 육아 상담 내용을 미리 작성한 객관식 10문제를 이용하여 방문조사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는 267명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101명, 비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가 166명이었다. 비 소아과 전문의는 내과 63명, 일반외과 21명, 산부인과 20명, 가정의학과 16명, 이비인후과 7명, 정신과, 흉부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각각 1명이었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는 36명이었다.

결과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1군의 점수는 73.0 ± 15.8 점, 2군은 45.1 ± 18.4 점으로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5$). 비소아과 전문의 중 전문 과목에 따른 점수는 내과 전문의가 46.5 ± 20.2 , 산부인과 전문의 44.5 ± 20.6 , 일반외과 전문의 40.5 ± 15.6 , 가정의학과 전문의 56.3 ± 16.9 , 이비인후과 전문의 47.1 ± 15.0 이었고 일반의 45.3 ± 16.3 점이었으며 타과 전문의와 일반의사 간의 점수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 질문 항목에는 모유 수유 권장 기간, 모유 수유 중에 무른 변을 보이는 경우, 모유 수유시에 나타나는 황달의 대처 요령, 이유식의 시작 시기, 시판 이유식을 먹이는 형태, 식물성 분유에 대한 지도 방침, 선식에 대한 지도 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1군과 2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본 조사 결과 소아과 전문의들에 비해 타과 전문의들이나 일반의들은 영아기의 영양에 대해 부적절하게 상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소아과 전문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타과 전문의에 의한 부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 고 문 헌

- 1) Whitehead RG. Infant physiology, nutritional requirements, and lactational adequacy. *Am J Clin Nutr* 1985;41:447-58.
 - 2) Kretchmer N. Weaning:enzymatic adaptation. *Am J Clin Nutr* 1985;41:391-8.
 - 3) Barness LA. Dietary patterns and nutrient intake of U.S. infants:introduction. *J Pediatr* 1990;117: S75.
 - 4) Whitehead RG. The human weaning process. *Pediatrics* 1985;75:189-93.
 - 5) Sullivan SA, Birch LL. Infant dietary experience and acceptance of solid foods. *Pediatrics* 1994;93: 271-7.
 - 6) 이현금, 최진영, 김철규, 한동관, 현 우, 이동기. 한국 어린이의 이유에 관한 실태 조사. *소아과* 1978;21: 664-71.
 - 7) 이승주, 박재옥, 손창성, 이해란, 신재훈, 정해일 등. 수유 실태 조사. *소아과* 1994;37:1657-68.
 - 8) 이승주, 박재옥, 손창성, 이해란, 신재훈, 정해일 등. 이유 실태 조사. *소아과* 1994;37:1643-56.
-